



중자 산업에 관심과 열정이 높은 학생 11명은 중국 연변대에서 유익한 강연을 듣고 실습에 나섰다.

중국에서 종자관련 글로벌스터디

원광대 안심안전농·식품 특성화사업단, 종자 생산 하우스 설치 등 실습

원광대 안심안전농·식품산업 인력양성 특성화사업단은 원광대와 합작으로 설립한 중국 연변대 실습농지에서 글로벌스터디를 진행했다고 17일 밝혔다.

중자 산업에 관심과 열정이 높은 학생 11명을 선발해 지난 5일부터 12일까지 시행한 이번 스터디는 종자 생산 하우스 설치부터 토양 일구기, 배추 파, 당근 종자 파종 등 종자 생산

과정을 직접 경험하고 실습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학생들의 종자 산업에 대한 관심과 취업 동기를 부여하기 위하여 연변대 양성농 농학원장과 유해성 교수 등을 통해 중국 종자 산업의 규모, 한국 종자 산업에서 중국시장 진출 확대를 위한 방안 등에 대한 강연을 듣고 토론을 펼치기도 했다.

스터디 일정을 마치고 돌아온 원예산업학과 오창석(4년) 학생은 "다운

날씨로 고생하긴 했지만, 파종한 작물이 북방농업연구소의 첫 작물이 될 생각을 하니 뿌듯하고, 많은 것을 배운 실습이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책임 교수인 배중환 단장은 "학생들이 해외에 나가 다양한 지식과 경험을 습득하고, 실제 학습까지 함으로써 개인 역량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학교 발전에도 많은 기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민형 기자

“도내 건설산업 활성화를”

도-전북건설단체연합회 간담회

전북건설단체연합회(회장 정대영)는 16일 전북도와 간담회를 갖고 전북지역 건설산업 활성화에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정대영 연합회장은 "최근 수년간 지속된 세계경제의 둔화와 장기화된 내수시장의 침체로 SOC분야 국가예산 축소에 따른 국내의 건설경기가 극도로 위축되고 있다"면서 "건설산업이 국민경제 비중도 크고 고용유발 효과가 매우 높기 때문에 건설 산업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 회장은 또 "전북지역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서는 SOC분야의 신규 사업발굴과 국가예산확보가 절실하다"며 도민에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는 도시재생사업의 적극추진을 권유했다.

특히 그는 새만금사업 남북2축 도로공사 등 발주시 평가기준에 전북건설업체가 공동으로 참여 할 수 있도록

참여 비율에 따른 가점 부여와 지역업체에 50%이상 하도급 의무화 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 등을 위해 각별한 협조와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송하진 지사는 "도민 희망을 현실로 실현하기 위해 18대 프로젝트 2020 대도와 준비하고 있다"면서 "그동안 추진한 새만금 공항, 2017년 무주 세계 태권도대회 유치, 미륵사지 백제유적지구유네스코 세계유산 지정, 대한민국 100년 먹거리 탄소법 제정 등 큰 성과는 도민과 합치된 노력 결과다. 앞으로도 전북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 있는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다양한 신규사업 발굴과 도민이 체감하는 행복망을 넓히는데 주력, 도민과 함께 더욱 강하고 힘 있게 전북발전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화답했다.

송 지사는 또 이날 간담회에서 제시된 전북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에 공감을 표하면서 건의사항을 적극 검토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신광영기자



전북은행, 헌혈캠페인 행사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이 전북은행 본점 현관 입구에서 휴가철 헌혈 인구 감소에 따른 혈액수급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JB 사랑나눔 헌혈캠페인'을 실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지난 16일 오전 9시부터 6시간에 걸쳐 전북은행 본점 직원과 협력사 및 입주시 직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전북은행은 'JB 사랑나눔 헌혈캠페인'을 대한적십자전북지사의 이동헌혈버스를 지원받아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해오고 있으며, 헌혈에 참여한 직원들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수혈을 받는 데 어려움이 있는 이웃들을 위해 헌혈 증서를 기증하는 이웃사랑 실천에도 앞장서고 있다. /고민형 기자

롯데백화점 전주점, 추석선물 상담팀 운영

롯데백화점 전주점(점장 박중구)은 한가위 추석이 한달 여 앞으로 성큼 다가옴에 따라 공단 및 기업을 대상으로 추석 선물 상담팀을 운영키로 했다.

추석 선물 상담팀은 2인 1조 3개조 등 임직원 6명으로 구성됐고 오는 9월13일까지 운영된다.

이들은 도내 기업체와 단체에 전화상담과 방문 영업을 실시한다. 특히 조별 업무를 구분, '선물 상담팀 업종별 전담제'로 운영된다. /신광영기자

롯데백화점 관계자는 "추석선물세트를 판매를 위해 식품매장 및 잡화매장 관리자들도 예외는 아니다. 그 동안의 고정고객 및 법인 고객들을 위해 가이드북 발송 및 사진리플 전하는 기본, 고객 잡기에 나설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추석선물에 관한 상담은 롯데백화점 전주점 선물상담팀 사무실 (063-289-3745~8번)으로 문의하면 된다. /신광영기자



이번 교육은 지난 5월 31일부터 시작해 격주로 총 7회에 걸쳐 진행됐다.

임직원 대상 '지재권 집중교육' 수료식

발명진흥회 전북지부 전북지식재산센터, IP경영 개선위해

한국발명진흥회 전북지부 전북지식재산센터는 지난 16일 전북 소상공인회센터 입주기업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IP경영 개선을 위한 지재권 집중교육' 수료식을 가졌다.

IP경영 개선을 위한 지재권 집중교육은 아이디어 사업화와 지식재산 역량 제고를 위해 추진 중이다.

이번 교육은 지난 5월 31일부터 시작해 격주로 총 7회에 걸쳐 진행됐다.

주 교육은 지식재산권의 기본지식 및 특허 검색방법과 출원, 청구범위 해석 및 분쟁 대응 전략 그리고 브랜드 경영전략 등 예비창업자 및 창업초기 기업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내용 위주로 꾸며졌다.

한국발명진흥회 전북지부 전북지식재산센터 정승원 센터장은 "이번 교육이 예비창업자 및 창업초기 기업들에게 성공적인 창업 밑바탕이 되었을 것으로 생각한다. 앞으로 전북지식재산센터에서는 지역의 예비창업자와 중소기업들의 지식재산 역량강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한편 도내 소재 기업중 지식재산권 교육이 필요한 기업들은 전북지식재산센터(063-252-9301)로 문의하면 맞춤형 교육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신광영기자

GS25편의점 소비자만족도 1위

GS25가 국내 편의점 체인 중 소비자만족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한국소비자원이 편의점 이용 소비자 1200명을 대상으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GS25는 3.68점으로 1위를 차지했다.

미니스톱과 CU가 3.64점으로 그 뒤를 이었고 세븐일레븐은 3.58점으로

최하위에 머물렀다. GS25는 시설 및 직원서비스(3.76점), 상품 및 가격(3.66점) 부문에서 가장 만족도가 높았다. 매장 위치 및 쾌적성 부문에서는 CU(3.96점)가, 서비스 체험 부문에서는 미니스톱(3.68점)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편의점 소비자들은 편의성 측면에서는 만족도가 비교적 높지만 가격에서는 크게 만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뉴시스

롯데그룹 소유부지, 사드 후보지 부각... 중국 보복 우려에 '근심'

검찰수사와 경영권 분쟁 등 내외위환을 겪고 있는 롯데그룹이 이번엔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논란의 중심으로 부각되면서 난처한 상황에 빠져들고 있다.

경북 성주 지역에 배치할 사드 포대의 후보 지역으로 롯데가 소유한 골프장 인근 임야가 '제3의 부지'로 급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만약 이 곳이 최종 부지로 결정될 경우 중국 측의 직접적인 경제 보복이 우려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17일 국방부 등에 따르면 경북 성주군 초전면 롯데스카이힐 골프장 인근 임야가 해발 680m로 고지대인데다 주변에 민가가 드물다는 이유로 사드 배치 '제3부지'의 유력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들은 지난 9~10일 잇따라 이 지역 현장 실사를 마쳤고 11일에는 류재승 국방부 정책실장이 직접 현장을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곳은 성주군청으로부터 차로 30분 거리인 북쪽 18km에 위치해 있다. 기존 후보지인 성산포대는 성주읍에서 자동 차로 8분 거리, 3km가량 떨어져 있다. 이 때문에 주민들의 전자파에 대한 불안감이 상대적으로 적어지고 골프장까지 도로가 있어 접근성도 좋다는 장점이 있다. 성주 지역 내 보수단체 등도 기존 후보지가 아닌 제3의 대안론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내놓고 있다.

황의종 국방부 기초실장은 한 지역 언론 인터뷰에서 "성주CC의 경우 적당도가 높은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1차적으로 롯데 측과 협상이 우선이며, 이를 토대로 국내 절차상 문제해결에 이어 최종적으로는 미국과 협의해야 할 사항이다"고 밝혔다. /뉴시스

농어촌공사 새만금사업단

새만금사업 국회 협조 요청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사업단(단장 박종대)은 17일 국회 김관영 국회의원 사무실과 김중희 국회의원 사무실을 연달아 방문하여 새만금 사업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박종대 새만금사업단장은 새만금 사업 관내지역 국회의원인 김관영(국민의당, 군산), 김중희 국회의원(국민의당, 김제·부안)에게 농생명용지 등 새만금 내 부개발 주요추진현황을 설명하고 예산협조 및 국회차원의 협조를 요청했다.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주도적으로 추진·발의한 김관영 국회의원은 장기 사업에 따른 정책을 사전에 예방하고 대한민국 경제 재도약을 위한 진취적인 사업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중희 국회의원은 차질 없는 사업추진을 위해 적극 협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제=곽태 기자

Jeonju Crime Victim Support Center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당신이 웃는 내일을 희망합니다”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범죄피해의 고통을 상담지원, 법률, 의료, 환경개선 지원 등을 통해 범죄가 있기 전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국번없이

1577-1295

전화상담, 사이버상담, 방문상담, 예약상담 등

매주 월요일 ~ 금요일 (연말연시와 공휴일 제외)

상담시간 : 10:00~17:00

전주지방경찰청

(사)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 (063) 276-8804, 8828

전주시 덕진구 시평로 25(덕진동 1가) 전주지방경찰청 신관 152호

*홈페이지 : www.jvs.or.kr *전자우편 : jvs@hanmail.net